

2025 04
제243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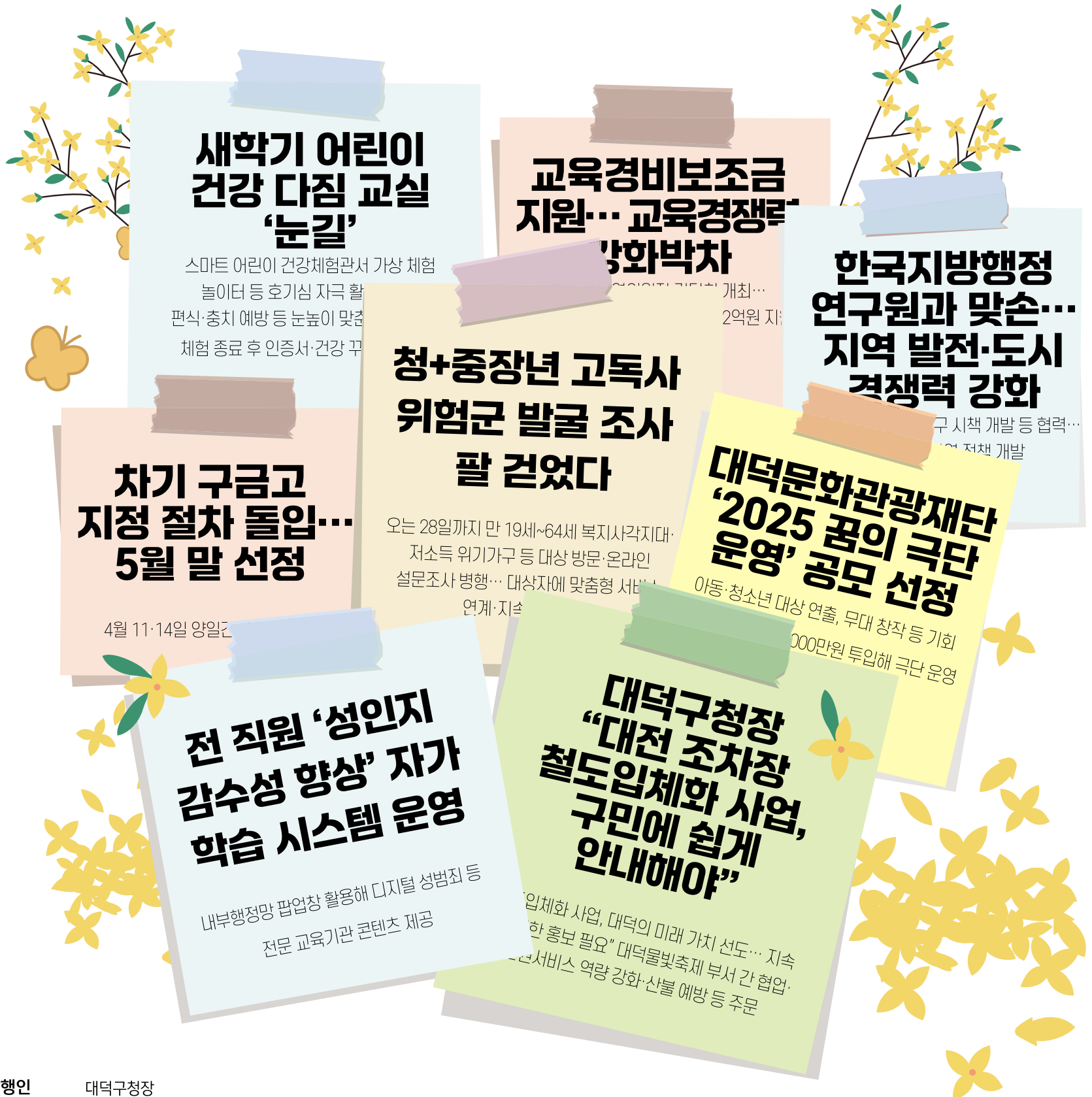
2024년 사진공모전 드론부문 수상작
대청호 대덕 물빛축제 권상만작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라피 박진희 作

- 02 지면 소개 및 구정 소식
- 03 구정 소식
- 05 [독자 기고] 성을현 대덕경제재단 기술디자인지원 센터장
- 06 대덕구 맛집
- 07 [대덕구기관장협의회] 방기봉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 08 열린의정
- 10 [인물인터뷰] 홍정미 산마을케어센터 대표
- 11 대덕톡톡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5년 4월 7일(제243호)

최충규 대덕구청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최충규 구청장이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인재원이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다. 최충규 구청장은 양수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대덕구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육아 지원을 위한 육아복합 마더센터 조성 △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 △스마트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등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 ‘어르신 돌봄건강학교’ 운영 △ ‘방문의료지원센터’ 조성 △노인 친화형 맞춤 임대주택 ‘늘봄채’ 도입 등 고령인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충규 구청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령 친화적인 대덕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불법 촬영 인식개선’ 사업 추진

공중화장실·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촬영 탐지 카드’ 비치
디지털 성범죄 적극 대응·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앞장’

대덕구가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촬영 인식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지역 내 공중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불법 촬영 탐지 카드와 사용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상시 비치할 예정이다. 불법 촬영 탐지 카드는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렌즈를 활용해 주변 디지털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 장소에 대한 불법 촬영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대덕구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토대로 향후 더 많은 공공장소 및 민간 시설에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비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내달 28일까지 신청 기간 연장

최대 50만원 경영비용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서 24시간 신청 가능

대덕구가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대전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원의 경영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덕구는 지난 2월 21일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해 1만 3000여 개 지원 대상 업체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경영비용 지출 증빙을 통해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부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비영리 사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이 없다고 판단돼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 주세요”

78세 기초수급자 할머니, 폐지 모아 석봉동에 500만원 기탁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초생계급여·폐지 수거해 모은 돈 전달
“나라로부터 도움받아 살아올 수 있어...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자”

대덕구 석봉동에 생계비와 폐지를 모아 번 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탁한 어르신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초생활수급자 김순자 씨(78)가 석봉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적은 금액이라 부끄럽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 씨는 20살이 되던 해 탈북해 중국에서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사별했다. 이후 딸 3명과 30년간 어렵게 지내다가, 50대 후반에 대한민국으로 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냈다.

폐지를 수거하며 기초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해 온 김 씨는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며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지역의 이웃을 돕자는 마음으로 생계급여와 폐지를 수집한 돈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라며 “저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신 김순자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배풀어주시는 마음은 지역의 어려운 주민에게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걸어서 대덕속으로

대청댐

비단처럼 아름다운 강이라 이름 붙여진 금강(錦江)에 위치한 대청댐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과 충북 청주시 사이에 있는 다목적댐이다.

1980년 댐 완공으로 생긴 대청호는 저수용량이 14억 9000만톤에 이르러 중부권에서는 충주호 다음으로 큰 호수이다.

댐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하류 지역 농경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대전, 청주, 전주, 군산 등 충청, 호남 지역 생활용수·공업용수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국내 최장의 다목적 인공호수인 대청호는 산간 계곡과 어울려 빼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주위에 금강로하스해피로드, 계족산, 청남대,

현암사 등 많은 관광지가 있다.

특히, 대청댐은 외지 관광객과 대전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덕 역사·문화 관광포털 및 대덕 관광안내도



대덕구 미래가 보인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성을현

대덕경제재단 기술디자인지원 센터장
충남대학교 교수

대덕구가 변하고 있다.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산업과 생활, 문화가 어우러진 ‘사람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수많은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이 맞닿는 구체적인 실행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 2~3월 진행된 대덕구청장 간담회는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민과 기업인, 소상공인, 행정이 마주 앉아 문제를 나누고 해결을 모색하는 소통의 현장은 곧 지역 행정의 미래를 보여주는 생생한 단면이었다.

균형발전의 시동, 신청사와 도시재생의 맞물림

대덕구의 중심은 이동 중이다. 43년 역사의 현 구청사를 떠나 연축지구로 새롭게 건립되는 신청사는 2027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오염토 정화 문제로 인해 약간의 지연이 있지만, 행정과 재정은 빠르게 뒷받침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구청 이전 이후의 현 청사 부지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된다. 청년주택, 창업 공간, 체육시설, 기업입주 공간, 브릿지 센터, 생활 주거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생활권과 산업권, 문화권을 동시에 재편하는 도시 리디자인이다.

산업의 르네상스, 대전산단 재생 대개조

1960년대부터 대덕의 심장이 되어온 대전산업단지는 세월과 함께 낙후의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지금, 그 공간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슬럼화된 공단을 혁신지구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로, 공동주택과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적 생태계를 목표로 한다. 공장만 가득했던 공간에 체육공원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이 들어서고, 젊은 인재들이 거주하고 창업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대덕구는 이를 위해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문화산단 조성 발표도 머지않았다. 이는 대전산단이 다시 지역경제의 엔진이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생활이 바뀌는 인프라, 트램, 공원, 도서관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인프라 개선도 눈에 띈다. 오정동 일대는 약 3만 평 규모의 오정근린공원으로 조성되며, 이 공원은 트램 노선과도 연결된다. 공원 옆에는 대표도서관이 입지할 예정으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도시의 상징성과 문화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트램 회덕역 연장, 신문교 건설,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 도로 등 도시의 동맥을 재구성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이동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연결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주민과 기업의 목소리, 행정에 담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현장의 요구가 구체적인 행정 조치로 연결된다는 점이었다.

기업인들은 낙후된 도로, 부족한 주차장, 좁은 진입로, 인허가 지연 문제 등을 제기했고, 구청은 이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단 진입로가 눈이 오면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부목 설치, 야자매트 포설 등 실질적인 보완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해 도로포장 및 정비에 예정되어 있다.

또한 공공주차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등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의견도 적극 수렴되었다.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 주민과 함께 만든다

행정은 속도와 방향 모두가 중요하다. 특히 지역발전은 행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탄력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대덕구는 지금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사구시형 행정을 펼치고 있다.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복합문화센터 활용, 청년 유입 확대, 공공 실증 공간 제공, 고용과 교육 연계까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접근이 바로 오늘날 대덕구의 방식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대덕구는 더 이상 대전의 외곽이 아니다. 트램이 지나가고, 대표도서관이 세워지고, 젊은이가 정착하는 도시. 산업이 살아나고, 주민의 발언이 정책이 되는 도시. 이것이 바로 지금 대덕구가 그려나가고 있는 미래다.

이 변화는 구호나 슬로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 주민과 눈을 맞추는 대화,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덕구의 미래는 이미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 도시를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국수 맛의 진수

비래동 '진마루국수잔치'

- 비래서로9번길 73(비래동 109-9) / 042-623-2366
- 보리밥 7000원, 수육 1만5000원, 국수류·만두 각 7000원, 진마루 특선 칼제비+짬만두(2개), 만두칼국수, 만두수제비 각 9000원
- 영업시간 : 08:00~21:00 (브레이크타임 15:00~17:00)
- 정기휴무 : 매주 일요일



잔치·비빔·열무국수 등 쓰이는 재료와 끓이는 방식에 따라 팔색조의 매력을 뽐내는 국수. 출출할 때 끼니를 때울 수도 있고,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다.

대덕구 비래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한 진마루국수잔치(대표 이한분·이한길)는 입에 착 감기는 쫄깃한 식감과 진한 국물, 독보적 양념 맛으로 미식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친자매가 함께 운영하는 이 집은 국수 및 보리밥 전문점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서구 변동에서 국수 전문점을 열었다. 이후 4년간 꾸준히 영업을 이어 오다 우연한 계기를 맞아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다고 한다.

사실, 진마루국수잔치는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맛집이라 할 수 있다.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지역 면 요리 맛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발행한 '누들이야기(총 71곳)' 책자에 진마루국수잔치가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 집은 국수 전문점답게 잔치국수 등 6개의 국수 메뉴와 만두, 보리밥, 수육 등을 판매한다. 특히,

면, 양념장, 육수 등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차별화된 맛을 선사하고 있다. 언니인 이한분 대표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어야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레시피 연구와 수작업에 좀 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그 노력의 진가를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집은 칼국수나 수제비 반죽에는 건강에 좋은 아로니아 가루를 넣어 독특한 면 색깔과 부드러운 식감을 내고 있다.

특히, 비빔국수의 경우 소스에 녹두를 첨가한 진마루만의 양념장으로 새콤달콤하면서도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된다. 그야말로 ‘비빔국수’의 맛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아울러 잔치국수의 기본 베이스인 육수도 멸치뿐만 아니라 꽃게, 뽕대미, 북어머리 등을 넣어 깊고 진한 맛을 낸다.

진마루의 또 하나의 별미는 보리밥이다. 보리밥과 다양한 채소가 대접 한가득 담겨 나오는 것은 물

론 고추장도 소고기를 직접 갈아 볶아낸 수제 양념 고추장이다. 보리밥과 함께 곁들여 나오는 된장찌개는 동생인 이한길 대표가 직접 담은 된장을 섞어 사용해 담백한 맛을 낸다. 엄마가 집된장으로 끓여준 바로 그 맛이다.

이처럼 만족스러운 맛과 함께 진마루의 또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는 저렴한 가격과 푸짐함 양이다. 수육을 제외한 보리밥·잔치국수 등 모든 메뉴가 7000원~9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가 시행하는 2022년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 메뉴 관리 컨설팅 부문에서 우수 외식업체 수상 음식점이기도 한 진마루국수잔치는 보리쌀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가격 인상을 여러 번 고민했지만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한분·이한길 자매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볼 때 가슴이 뿌듯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복지관 등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나눔 잔치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연의 맛, 세월의 맛

비래동 '논추어탕'

- 대전 대덕구 비래서로9번길 40(비래동 121-2) / 042-623-5018
- 자연산추어탕+돌솥밥 1만원, 추어전골(小) 2만5000원, 미꾸라지튀김 1만5000원, 뚝배기김치찌개 8000원, 청국장 7000원
- 영업시간 : 09:00~21:00
- 정기휴무 : 매주 일요일



어렸을 적 동네 논이나 얇은 저수지, 도랑 등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양재기에 한가득 담아오면 어머니는 이내 능숙한 손놀림으로 손질해 뒷발의 푸성귀를 넣고 가마솥에 푹 끓여 내오신다. 먹거리가 변변치 않던 시절 온 가족의 보양식이었던 추어탕(鰻魚湯)에 대한 기억이다.

대덕구 비래동 논추어탕(대표 김용태·이영자 부부)은 이제는 어린 날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을 법한 자연산 미꾸라지만 사용해 고소하고 담백한 추어탕 맛을 내고 있다. 미꾸라지를 개울가에서 잡아 충남 공주시 계룡면 소재 자신의 논에서 직접 기른 자연산 미꾸라지만을 쓴다고.

몸에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 주성분을 이루고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한 미꾸라지를 청정 자연에서 키워 손님들에게 최고의 보양식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적잖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논에 물이 넘치고, 놀란 미꾸라지들이 뛰면서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어서 매일 지

키며 관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같은 사정으로 미꾸라지를 직접 기르는 일은 결국 접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연산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김 대표는 이후 전라도 청정지역에서 직접 잡은 미꾸라지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주방을 맡고 있는 안주인 이영자 대표는 “미꾸라지의 특성상 항상 신선하게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해감(흙이나 모래 찌꺼기 제거) 하고 푹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잡냄새가 안 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지요. 식당 안에 살아있는 미꾸라지가 담긴 수조가 있는 그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삶은 미꾸라지를 여 번 체로 걸러 곱고 걸쭉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지만 깊은 육수 맛과 부드러운 식감의 비결이지요”라고 말했다.

실제, 이 집의 추어탕은 먹을수록 맛이 진하고 걸쭉하다. 여기에 다진 풋고추와 초피가루를 넣으면 알싸한 맛이 더해지니 맛이 제대로 살아난다.

이 집의 또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는 쌀, 김치, 고춧가루 등 식재료 대부분을 김용태 대표가 직접 농사지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끝내주는 추어탕 맛과 건강한 반찬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맛집이라 할 수 있다.

이 집은 추어탕은 물론 추어전골, 미꾸라지 튀김, 새우탕, 토종닭 백숙 등의 메뉴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청국장은 직접 담가 맛이 일품이다.

여기에 직접 채취한 나물 등 매일매일 반찬이 바뀌는 것은 물론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를 아끼지 않고 짹짹 넣으시는 안주인 이영자 대표의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지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비래동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용태·이영자 부부는 “자연산 미꾸라지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목표이자 자부심입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집밥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덕구기관장협의회 방기봉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대전시가 지난 1990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덕구 문평동, 신일동 일원 약 94만평 부지에 조성한 대덕산업단지. 1993년 입주가 시작된 이래 32년 동안 기계, 전자, 화학 등 국내 대표 기업 등 383개 업체가 생산활동에 전념하며 어느덧 중부권 핵심 산업단지로 성장했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고부가 기술혁신형 산업구조로 변모를 꾀하는 등 새로운 50년, 100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덕라이프 편집자는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선장을 맡고 있는 방기봉(66) 이사장을 만나 대덕산단의 현재와 미래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방 기 봉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① 대덕산업단지 및 관리공단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 주다면?

입주 초기에는 54개 업체, 연간 생산액 3,700억원에 불과했던 대덕산업단지는 2024년 말 기준 기계, 전자, 화학, 금속 등 총 383개 기업이 입주해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출액 26억달러, 고용인원 약 1만 2000명으로 성장해 명실상부한 대전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3년 6월 15일 설립된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은 현 이사장과 전무이사 등 총 30명의 임직원이 △대덕산업단지 관리 △입주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지원사업 수행 △공공폐수처리시설(환경사업소)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대덕산업단지가 그간 대전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다. 지나온 발자취 및 성과, 아쉬운 점(노후화 등)을 소개한다면?

입주 초기에는 54개 업체, 연간 생산액 37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4년 말 기준 383개 업체, 연간 생산액 8조 300억원을 기록한 것만 보더라도 것을 보면 그간 대전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분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 대전에서 대덕산업단지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공단이 기업들의 안정된 생산을 도우며 대덕산단의 성장에 일조해 왔다는 점에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③ 입주기업들에게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다면?

우선 입주기업들을 위해 △입주계약 △공장등록 △배수설비설치승인 등 경영 및 생산활동에 필요한 주요 민원 업무들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근로자 자녀 및 지역사회에서 추천받은 신입생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입학축하지원(2024년 27명 3600만원, 2025년 15명 1700만원) △이사장배 볼링대회(2007년부터 매년 개최) △명사 초청 강연회 개최 등의 지원 서비스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밖에 설명회, 직무교육, 모범근로자 표창, 문화 행사, 환경 관리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④ 대덕산업단지 발전을 위해 정부 및 대전시·대덕구 등에 수정·보완·개선 등을 요청할 부분이 있다면?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32년이 넘으면서 시설개선 등의 재정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공공 폐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및 관로 재정비 △공영주차타워 등 편의시설 확충 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생사업이 추진되면 대전의 산업과 경제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환경개선이 이뤄져 대전경제발전의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⑤ 오랜 기간 대덕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을 이끌고 계시는 비결이 있으신지?

대덕산업단지가 있기까지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한 입주기업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덕산업단지는 날로 발전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공단도 성장해 명실상부한 중부권 핵심 산업단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관리공단의 발전을 이끌어 주신 기업인,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⑥ 대전시와 대덕구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대표적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면?

관리공단은 매년 지역사회는 물론 대전시, 대덕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성금 △대덕물빛축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목상동 지역사회후원, 지역사회 어린이 후원은 물론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기타 문화예술 후원 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관리공단과 입주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금한 성금 1억원을 대전시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공단은 입주기업들과 함께 나눔경영 실천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⑦ 끝으로 대덕구민들에게 드릴 말씀과 당부사항이 있다면?

대덕구 및 지역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청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관리공단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8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조차장 입체화 사업 성공에 총력 주문



조대웅 의원

조대웅 의원(다선거구)은 대전조차장이 최근 정부의 국가선도사업에 선정된 데 대해 성공 추진을 위한 총력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업 선정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지역 정치권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숙원 사업이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대전조차장이 입체화 사업을 통해 IT특화지구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소개한 뒤 “동서지역 간 균형발전이 실현되고 신규 경제거점 형성에 따른 지역 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약 1조4000억 원)를 국비 없이 입체화 상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전시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한편, 상반기 수립 예정인 사업 기본계획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조차장이 상서동으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기본 계획 이후 다른 부지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경우 대전시에 적극 요청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역사랑상품권 부활 적극 검토 주문



박효서 의원

박효서 의원(나선거구)이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3년부터 지역 사랑상품권 관련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오히려 지자체 예산을 늘린 곳도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됐을 때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020년 대덕e로움(대덕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점포당 평균 매출 하루 7만2000원·월 133만 원 증가 △사용자 35% ‘지역 내 지출 증가했다’ 응답 △사용자 24.5%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한다’ 응답 등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것”이라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인지도가 높은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부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잘 갖춰진 시스템과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역설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적극 추진 주문



양영자 의원

양영자 의원(비례대표)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고 “과중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보호 대상자에게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지역 정신건강 상담건수는 2022년 3428건에서 2024년 4925건으로 약 50% 증가했다”면서 “정신건강 분야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가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 의원은 “기존 정신건강 관련 지원 사업을 돌아보고 재정립을 통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일상관리, 지역사회 돌봄 체계, 퇴원 뒤 지속 관리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상시 발굴 지원체계 구축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양 의원은 “정신질환을 향한 부정적 시선과 혐오 그리고 비난을 줄일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선 구제 후 구상권’ 주문



김기홍 의원

김기홍 의원(가선거구)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폭넓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현행 지원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절실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대전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LH의 피해 주택 매입률은 3.6%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 금융 상태·부동산 가치 사전 심사 등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도 많은 청년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다”며 “전세 사기는 단순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며, 이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연축동 신청사 공사 현장 살피

사업 추진·애로사항 등 청취...오정근린공원도 점검

대덕구의회는 지난 3월 13일 연축동 대덕구 신청사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제285회 임시회 현장방문의 일환인 이날 점검은 공사 진행 상황과 함께 향후 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의회는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현황을 비롯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향후 의회 차원의 지원 내용 등에 대해 공유했다.

총 1598억 원(구비)이 투입되는 대덕구 신청사는 연축동 241번지 일원 연면적 4만8810㎡에 지하2층지상9층(본청·의회·보건소)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7월 착공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어 구의회는 지난달 조성 완료된 오정근린공원으로 이동해 공원 곳곳을 살피는 한편, 관계자들에게 향후 철저한 공원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오정동 산17-1번지 일원에 조성된 오정근린공원은 잔디마당, 다목적구장, 놀이공간, 무장애산책로, 공중화장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전석광 의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편의 제고와 복리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임시회에서 ‘원포인트’ 추경 처리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등 담겨

대덕구의회는 지난 3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구의회는 올해 첫 추경에 대해 당위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심사했다. 약 5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에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분이 담겨 있다.

이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 편성된 만큼, 신속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했다”라고 말했다.

또 지역경제와 복지 등에 관한 의원별 5분발언을 비롯해 대덕구청 신청사 부지와 오정근린공원 등에서 사업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등이 진행됐다.

이밖에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등 30여 개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전석광 의장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조할 사항에 대해선 적극 손을 잡을 것”이라면서도 “아쉬운 정책이나 미진한 사업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김기흥 의원

2008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인증)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2015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빠른 고령화 속, 연령과 장애 그리고 신체적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함께 생활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담긴 BF인증의 취지와 중요성에 많은 국민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지역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 BF인증은 도입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현행 BF인증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BF인증을 위한 인증기관과 담당자 수는 전국 단 11곳에 100명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기관 확대 지정 및 업무 담당자 수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신속한 인증 처리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 대덕구에선 최근 5년간 모두 14건의 BF인증이 완료됐는데 평균 소요 기간이 약 11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건은 BF인증 절차 지연 사유로 준공 일자를 지키지 못했다고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4월 조성이 시작된 갈전동 생태습지 공중화장실의 경우 BF

인증 절차 지연으로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BF인증 심사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개편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여러 단계의 서류심사와 현장 점검 과정에서 행정적·시간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인증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디지털화 구축을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도 요구된다. 현 심사 기준이 시설 특성과 실제 이용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심사 기준이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심사위원의 개인 견해에 의해 불합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BF인증 지연으로 예정된 일정에 공공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제도가 도리어 시민에게 장애물로 작용하는 모순된 상황을 낳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세부 기준을 더욱 객관화하고,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설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심사 방식 등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처럼 BF인증 절차가 양적·질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눔의 삶에서 행복을 찾다

홍정미 산마을케어센터 대표

빈첸시오회 활동으로 봉사 인연... 독거 어르신 등 지역 취약계층 돌봄 앞장
 ‘늦깎이’ 사회복지학 공부해 박사학위 취득... 공부하면서도 봉사 이어가
 지역사회 나눔 리더 활동·산마을케어센터 ‘더 베스트 착한가게’ 선정도
 “봉사로 이웃에 손 내미는 것에서 시작...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

홍 정 미
 산마을케어센터 대표



이처럼 봉사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홍 대표는 좀 더 체계적인 봉사와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늦깎이 사회복지학 공부에 나섰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처럼 마침내 박사학위 취득까지 이뤄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나누는 과정. 그런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 가정, 사회로 흘러가며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를 주는 것이 봉사인 것 같습니다”

17년째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홍정미(62·여) 산마을케어센터 대표는 대덕라이프 편집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봉사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서 노인복지 ‘산마을케어센터’를 운영 중인 홍 대표는 지난 2008년 가톨릭 자선 단체인 빈첸시오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한다.

빈첸시오회를 통해 봉사, 정기 후원 및 기부에 참여했던 홍 대표는 더 많은 이들을 돕고자 독지가(篤志家)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다니며 후원 모금 활동을 펼쳤다.

“한 분 한 분의 정성으로 모인 후원금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 등 주로 무연고자(無緣故者)들을 돌보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가족, 친척 등 연락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의식주와 건강관리 등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사, 병원 치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밀착 돌봄이 이뤄지는데, 다행히도 많은 봉사자분이 함께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밀착 돌봄 이외에도 홍 대표는 돌보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장례를 치르고 유품 정리까지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한다.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결코 혼자가 아닌 따뜻한 이웃이 있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홍정미 대표는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작은 힘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청소와 빨래 등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에게 큰 위로가 됐고 삶의 희망이 됐습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홍 대표는 △다문화(결혼이주여성)가정 △청소년 △부랑인 △교도소 재소인 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시간과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녔다. 오랜 기간 봉사와 기부를 실천해 오면서 베풀의 삶이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마법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홍 대표는 학업을 수행하는 기간에도 산마을케어센터 운영은 물론 홀몸 어르신들에게 영양 도시락, 반찬 등을 직접 만들어 일일이 방문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등 헌신적인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을 통해 중장년 1인 가구, 은둔형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홍정미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리더로도 활동하고 있다.

나눔 리더는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기부·약정한 개인 기부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대전에서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또, 그녀가 운영하는 산마을케어센터도 지난 2020년부터 매출액 일부를 정기 기부하는 ‘착한 가게’로 참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더 베스트 착한 가게’로 선정됐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홍정미 대표. “봉사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듯이, 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지문 사전등록으로 **실증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세요!

치매안심센터 분소 지문 사전등록 사업 개시

- 대 상** 실증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 내 용** 경찰청(안전Dream) 시스템에 치매 환자의 지문 및 인적사항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 운영기간** 연 중
- 운영방법** 사전예약제
- 신청방법** 예약전화 후 보호자와 함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방문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대덕구 동춘당로 187, 3층
법2동 행정복지센터
☎042-608-5426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분소



대덕구 대덕대로 1579 1층
석봉북합문화센터
☎042-608-4427



인공지능이 내 건강을?

• 북부주민건강센터 •

스마트건강측정실운영

- 1 인공지능(AI) 모션인식 자세검사 및 체형분석
 - 2 보행분석 및 인공지능(AI) 트래킹 기반 보행훈련
- AI 분석 스마트 리포트& 1:1맞춤형 운동 교육·솔루션 제공
- 모바일 앱(APP)을 활용한 실시간 건강관리



- 참여방법** 평일 월·수·금 13:30 ~ 16:30 / *사전예약제 운영
- 예약방법** N 네이버 예약 북부주민건강센터 검색 후 체형측정실 시간 예약
- 장 소** 북부주민건강센터 / 대덕구 대덕대로 1579(석봉북합문화센터 1층)
- 문 의** ☎ 042-608-4421, 4434



“행복한 기다림” 임산부 건강교실과 모유수유 특강 참여자 모집합니다!

행복한 임신 · 건강한 출산을 함께합니다

- 대 상**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신혼부부도 가능)
- 내 용**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체험형 강의

구 분	일 시	장 소	교육내용
임산부 건강교실	1기 5월 9일 ~ 5월 30일 매주 금, 10~12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2층 프로그램실 (대덕구 대청로 47, 신탄진동)	1주차: 출산교육 2주차: 태교 공예 (딸랑이 만들기) 3주차: 신생아 및 산후관리 교육 4주차: 태교 공예 (배냇저고리 꾸미기)
	2기 6월 9일 ~ 6월 30일 매주 월, 14~16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대덕구 동춘당로 187, 법동)	
모유수유 특강	6월 2일(월), 14~16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대덕구 동춘당로 187, 법동)	수유 자세, 유축기 사용법 등 - 오케타니 탄방점 강사 초빙 -

모집기간 2025년 4월 ~ 모집완료 시까지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접수

문 의 대덕구 보건소 가정보건팀
☎042-608-5484, 5408



C형간염 확진 검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대 상**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검사를 받은 자
- 지원금액** C형간염 진단을 위한 확진검사(RNA)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 신청방법** **온 라 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기한** 국가건강검진 수검 다음해 3월31일까지
- 제출서류**
 -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 (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카드 전표나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
 - ☑ 지원대상자의 통장 사본 (본인명의만 가능)
 - ☑ 신청인이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문 의** 대덕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42-608-4452



 대덕구자원봉사센터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대전광역시자살예방센터

문의 : 대덕구 세원관리과(☎042-608-6652)

